

CLEANING WORKERS

청소·위생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위험 통계



청소·위생노동은 일상의 쾌적함을 책임지는 필수 업무지만, 현장은 고령 집중·산재 다발·건강위험이 겹친 취약 지대로 드러난다. 노동자 10명 중 8명이 55세 이상이고, 최근 7년간(2018~2024) 산업재해 9,005명·사망 208명이 발생했다. 근골격계 부담, 저임금, 고용불안, 감정노동 등 복합적 취약성이 지속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청소·위생노동자, 고령 노동자 집중

2014년 제4차 근로환경조사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위생노동자(직종코드 941)는 대한민국에서 고령 노동자가 가장 집중된 대표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청소·위생노동자
10명 중 8명이 55세 이상

전체 청소·위생노동자 수 669,523명 중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

514,734명

18.1%



전체 평균

76.9%



청소·위생노동자

출처 2014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기반 고령근로자 직종 통계

청소·위생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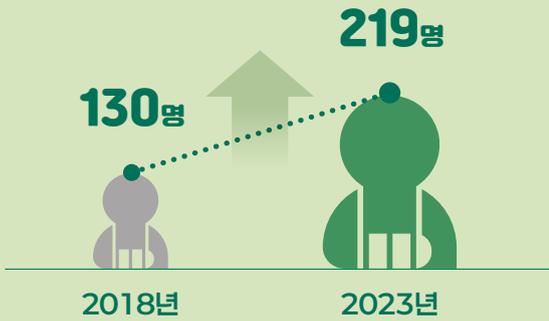
7년간 산업재해 현황(2018~2024)
총 재해자 9,005명

사망자 **208**명

연평균 30명, 2025년 상반기만 19명 사망.
사고원인: 추락(떨어짐) > 끼임(협착) > 부딪힘



업무상 질병 재해자



68.5% 증가

근골격계질환,
호흡기·피부질환 증가 추세

출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2025.9.21),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통계자료(2018~2024)

건강위험 및 감정노동 실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는 근골격계 부담, 저임금, 고용 불안, 낮은 근무유연성 등 노동취약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55.5%
근골격계 위험노출

바닥닦기·대걸레질·쓰레기 수거 등 반복강도 작업이 많아
어깨·허리·무릎·손목 부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	여성	남성 대비 증가폭
물리적 위험	높음	+7.6%p
생물·화학적 위험	매우 높음	+44.0%p
근골격계 위험	현저히 높음	+54.2%p

출처 신승배, 「제주지역 청소노동자 성별 근로환경 특성 및 정책점 시사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71.